

『삼국연의』에 나오는 손으로 던지는 暗器에 관하여

홍윤기*

<目 次>

1. 서론
2. 손으로 던지는 暗器
 - 1) 비도(飛刀)
 - 2) 비차(飛叉)
 - 3) 단극(短戟)과 소극(小戟)과 수극(手戟)
 - 4) 차돌(石子)
 - 5) 방촌지인(方寸之刃)
 - 6) 촌철(寸鐵)
3. 결론

1. 서론

고대의 문화 문명은 전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쟁은 고대 중국의 문화 문명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짚어야만 하는 맥(脈)의 하나이다. 孔子의 제자 子貢이 공자에게 政治에 대하여 묻자, 공자는 “경제력을 넉넉하게 갖추고, 군사력을 넉넉하게 갖추고 있으면, 백성들이 정치가를 믿게 될 것이다.”¹⁾라고 대답하였다. 공자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확보가 정치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曹操 또한 “성인께서 군사력을 쓰심에 있어서 (평화로운 때는) 가만히 거두어 두셨다가 꼭 필요할 때만 움직이셨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래에서만 군사력을 쓰셨던 것이다.”²⁾라고 하였다. 전쟁이나 군사력은 이상적인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고대문학 교수

1) 『論語·顏淵』: 子貢問政。子曰: “足食足兵, 民信之矣。”

정치가가 좋아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피할 것도 아니며,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고대 중국의 전쟁을 이해하는 것은 고대 중국의 문화 문명의 주요한 줄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은 인간의 폭력성과 파괴성이 빚어낸 대규모적이고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폭력성과 파괴성에 대한 이해이다. 그런데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을 살상하는 도구인 兵器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고대 중국의 전쟁을 테마로 하는 대표적인 소설 『삼국연의』³⁾ 안에 나오는 병기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커다란 목적 아래에 기획되었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소설 『삼국연의』에 나오는 ‘손으로 던지는 暗器’와 관련된 묘사를 형상적으로·역사적으로·과학적으로·수리적⁴⁾으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있다. 본고는 大魁堂本을 底本으로 하고 있는 毛宗崗本 『三國演義』를 연구 텍스트로 삼았다.⁵⁾

2. 손으로 던지는 暗器

『中國古代器物大詞典 - 兵器·刑具』⁶⁾은 暗器를, “숨기기 편하여, 생각지도 못하게 적을 기습하는 병기”⁷⁾라고 정의하였다. 암기는 은폐 무기로서, 공격자가 이를 숨기고 있다가 기습 매복 등의 방법으로 공격 상대에게 傷害를 입히는 무기이다. 따라서 암기의 특징은 공격 상대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숨기기 쉽고 크기가

2) 曹操, 『孫子兵法·序』: 聖人之用兵, 戢而時動, 不得已而用之. 孫武 撰, 曹操等 注, 楊內安 校理, 『十一家注孫子校理』, 北京, 中華書局, 1999.

3) 본고에서 『삼국연의』는 소설을, 『삼국지』는 역사를 가리킨다.

4) 본고의 모든 도량형은 다음 도서를 기준으로 하였다.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附錄·索引』,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5) 羅貫中 著, 毛宗崗 評改, 『三國演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6) 陸錫興, 『中國古代器物大詞典 - 兵器·刑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2. 앞으로는 이를 줄여서 『병기사전』으로 부르기로 한다.

7) 『병기사전』: 暗器: 便於藏匿, 可出其不意擊人的兵器.

작고 가볍고 다양한 질료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의 고대 병기 전문가 周緯는 『中國兵器史稿』에서 암기를 清代의 멀리 쏘기 병기(射遠器)에 배치하고 있다. 그는 청대의 암기를 손으로 던지는 것(手擲), 줄로 묶은 것(索系), 기계로 쏘는 것(機射), 약물을 뿜어내는 것(藥噴) 4종류로 나누었다.⁸⁾

周緯의 기준을 바탕으로, 『삼국연의』의 원문에 나오는 암기의 종류를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손으로 던지는 암기⁹⁾: 비도(飛刀), 비차(飛叉), 단극(短戟), 소극(小戟), 차돌(石子), 방촌지인(方寸之刃), 촌철(寸鐵). ② 줄로 묶은 암기: 유성추(流星鎚), 삼개유성추(三個流星鎚), 비추(飛鎚), 올가미(套索), 말 밧걸이 올가미(絆馬索). ③ 기계로 쏘는 암기: 냉전(冷箭), 암전(暗箭), 암노(暗弩). ④ 약물 암기: 독약(毒藥). ⑤ 추격방해용 암기: 철질러(鐵蒺藜) 등. 본고에서는 논문 분량의 제약문제 때문에 먼저 '손으로 던지는 암기'만을 다루고, 그 밖의 암기들은 이후에 다루기로 한다.

1) 비도(飛刀)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비도(飛刀)는, 제90회에 맹획(孟獲)의 아내인 축융부인(祝融夫人)이 쓰는 것으로 3번 나온다.

8) 周緯가 분류한 清代의 4종류의 암기는 다음과 같다: 손으로 던지는 암기로는 표창(標槍), 금전표(金錢鏢), 탈수표(脫手鏢), 척전(擲箭), 비차(飛叉), 비노(飛鏢), 비자(飛刺), 비도(飛刀), 비황석(飛蝗石), 아란석(鵝卵石), 철감람(鐵橄欖), 여의주(如意珠), 건곤권(乾坤圈)이 있다. 줄로 묶은 암기로는 승표(繩鏢), 류성추(流星鎚), 랑아추(狼牙錘), 용수구(龍鬚鉤), 연편(軟鞭), 금투색(錦套索), 비조(飛爪), 철련화(鐵蓮花)가 있다. 기계로 쏘는 암기로는, 단통수전(單筒袖箭), 매화수전(梅花袖箭), 탄궁(彈弓), 노전(弩箭), 화장노(花裝弩), 답노(踏弩), 뇌공첩(雷公鎗), 철원앙(鐵鴛鴦), 철침여(鐵蟾蜍), 수포(袖炮)가 있다. 약물을 뿜어내는 암기로는, 분통(噴筒), 조취총(鳥嘴銃)이 있다.

9) '손으로 던지는 암기'란, 손으로 던지는 줄이 없는 암기를 가리킨다. 손으로 던지면서도 줄로 묶은 암기는, '줄로 묶은 암기' 안에 배치하였다.

90회: (맹획의 아내) 축융부인은 대대로 南蠻에서 살았는데 비도(飛刀)를 잘 다루어서 던지는 족족 다 맞힐 수 있었다. 축융부인은 등에 다섯 자루의 비도(飛刀)를 꽂고 있었고, 손에는 1丈8尺(=435.6cm)¹⁰⁾ 길이의 장표(丈八長標)를 치켜들고 있었고, 축의 장수 장억이 축융부인을 쫓아가는데, 공중에서 비도(飛刀) 한 자루가 날아들었다. 장억이 재빨리 손으로 쳐내려했지만, 어느새 왼쪽 팔에 꽂혔다. 장억은 고품라 지며 말에서 떨어졌다.¹¹⁾

축융부인은 역사 기록에 없는 완전한 가공인물이다. 그녀가 飛刀를 썼다는 것도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飛刀를 야만의 이민족 여성이 다루는 暗器로 묘사하고 있다.

모종강의 단평은 이 묘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초선(貂蟬)은 여장군이기는 하지만 일찍이 병기를 쓴 적은 없다. 손부인(孫夫人)이 설령 병기를 좋아하기는 하였지만, 일찍이 병기로 전투를 벌인 적은 없다. 여기에서야 진짜로 여장군이 나온다. 『삼국연의』에는 참으로 없는 것이 없다.”¹²⁾ 이 단평은 『삼국연의』의 작가가 여성 장수를 등장시킬 때, 의도적으로 단계적으로 비전투 여성(초선) → 무장 여성(손부인) → 실전 전투 여성(축융부인)의 순서로 안배하였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원(中原) 지역의 전통 한족 여성인 초선에게는 국가 대의를 위하여 동탁과 여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청순가련형이면서 두뇌형 미녀 형상을, 중국 남쪽 지역 인물인 손부인에게는 다소 허세를 부리면서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서 어리석고 수동적인 여성 형상을 부여한 것과는 달리, 이민족의 여성에게는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야만적이며 적극적인 여성 형상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관중의 축융부인에 대한 묘사를 두고, 모종강은 비아냥대는 말투로 성희롱을 뒤섞어가며 여성 비하와 이민족 비하를 내용으로 하는 저질적인 단평을 달고 있다. 이러한 단평들은 아마도 만주족의 통치를 받았

10) 後漢 三國 1丈=242cm, 1尺 =24.2cm, 1丈8尺=1.8丈=435.6cm.

11) 90회: 夫人世居南蠻, 善使飛刀, 百發百中。..... 祝融夫人背插五口飛刀, 手挺丈八長標, 張嶷趕去, 空中一把飛刀落下。嶷急用手隔, 正中左臂, 翻身落馬。

12) 90회 毛宗崗 短評: 貂蟬可當女將軍, 然未嘗用兵也; 孫夫人雖好兵, 然未嘗以兵戰也。此處却真有一員女將出來, 『三國志』中真是無所不有。

던 청나라 시기 한족 남성 독자들에게 대리만족감을 채워주었을 것이다.¹³⁾

(2) 飛刀의 정의와 생김새

『병기사전』은 “비도(飛刀): 적에게 던지는 데에 쓰는 짧은 칼(短刀)이다.”¹⁴⁾라고 정의하였다. 明나라 戚繼光은 『練兵實紀雜集』에서 비도(飛刀)의 생김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비창(飛鎗), 비도(飛刀), 비검(飛劍)에 대한 풀이: “그 축은 길이가 5寸(17cm)¹⁵⁾이고, 너비는 8分(2.72cm)¹⁶⁾인데, 어떤 것은 검(劍)처럼 생겼고, 어떤 것은 칼(刀)처럼 생겼고, 어떤 것은 세 모서리가 불화살촉끝처럼 생겼다.”¹⁷⁾

周緯는 『中國兵器史稿·清代兵器·清代暗器』에서 그 종류와 생김새와 제작 방법 및 지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3) 모종강의 매우 저질적인 단평들은 다음과 같다. “남쪽 오랑캐는 더 이상 야만스러울 수가 없어라. 오랑캐의 마누라 또한 야만적이니 그 꼴이 참 볼 만하고 죽여주는구나. (蠻子還蠻不了, 蠻婆又蠻起來, 真好看煞人。), “남쪽은 본디 오행 가운데 불(火)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런 축음부인이라는 불의 종족의 씨알이 있나보다. 그런데 이 부인은 불처럼 뜨거울 텐데, 어떻게 그녀의 뜨거움을 죽여주나? (南方屬火, 故有此火種。然此婦如火一般熱, 如何煞得他火氣?), “(그녀는) 그밖에도 또 하나의 탄력 있는 가위를 가지고 있으니, 더욱 대단하다. (還有一口軟剪刀, 更利害。), “부인께서는 또 장표를 곧추세우기를 좋아하시네? (夫人亦喜挺長標耶?), “부인께서 앉은 물건(卷毛赤兔馬)이 털도 있고 붉은 색이니, 한바탕 웃음이 절로 나네. (夫人坐下之物又毛又赤, 可發一笑。), “부인에게는 들어갈 동굴이 있으니, 한바탕 웃음이 절로 나네. (夫人有洞可入, 可發一笑。)” 부드러운 가위, 동굴은 여성의 성기를, 장표와 앉은 물건은 남성의 성기를 비유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비록 모종강의 이 단평들은 매우 저질적이지만, 羅貫中의 祝融夫人에 대한 묘사에는 사실 성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견해로서 매우 천재적이며 현대적인 비평이라고 여겨진다.

14) 『병기사전』: 飛刀: 用於投擲擊人的短刀。

15) 明代에 裁衣尺으로 1寸=3.4cm, 量地尺으로 1寸=3.27cm, 營造尺으로 1寸=3.2cm이다. 여기에서는 裁衣尺으로 계산하였다. 5촌=5×3.4cm=17cm.

16) 8分=8×0.34cm=2.72cm.

17) 明 戚繼光 『練兵實紀雜集·軍器解上』: 飛鎗、飛刀、飛劍解: 其鎗長五寸, 橫闊八分, 或如劍形, 或如刀形, 或三稜如火箭頭。

청대(清代)의 비도(飛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날이 하나인 것, 날이 두 개 인 것, 언월도(偃月刀)처럼 생긴 것이 있다. 생김새에 따라서 던지는 법도 다르다. 유엽비도(柳葉飛刀)는 날이 두 개로 버드나무 잎사귀처럼 생겨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양날은 날카로우며, 날은 종이처럼 얇고 가운데에는 줄기가 있으며, 비도의 끝은 바늘처럼 뾰족하며, 줄기 가까운 곳이 가장 두꺼운데, 약 2分(≒6.7mm)이다, 비도의 중량은 겨우 3兩(150g)남짓이며, 자루는 쇠로 만드는데, 그 중량은 4兩(200g)남짓이다. …… 자루의 끝에는 붉거나 푸른색의 끈을 묶어두는데, 그 길이는 2촌(≒6.7cm) 남짓이다. …… 칼은 순강(純鋼)을 때려서 만든다. 12개의 비도를 하나의 칼집에 둔다. …… 비도를 지니는 방법은 표(鏢)를 지니는 방법과는 다르다. 표(鏢) 집은 옆구리에 걸어 묶지만, 비도의 집은 등 뒤에 묶는다. 오른 손 잡이는 왼쪽 어깨와 등뼈 사이에 비스듬히 묶는다. …… 18)

비도(飛刀)는 여성이 운용하기에 알맞은 짧고 가벼운 암기(暗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루의 끝에 붉거나 푸른색의 끈을 묶어두었던 것은, 비도(飛刀)의 안정적인 비행궤적(飛行軌跡)을 확보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고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청나라 때 등 뒤에 비도를 착용하는 방법과 명나라 『삼국연의』의 축융부인이 비도(飛刀)를 착용하는 방법이 거의 똑같음을 알 수 있다.¹⁹⁾

2) 비차(飛叉)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비차(飛叉)는 제52회에서 진응(陳應)이 조운(趙雲)을 상대로 쓰는 병기로 2번 나온다.

52회: 원래 (진응과 포룡) 두 사람은 桂陽嶺 산속 마을의 사냥꾼들이었다. 진응은 비차(飛叉)를 잘 썼고, …… 진응이 고개를 돌아보니 조운의 말

18) 周緯, 『中國兵器史稿』,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6, 188쪽.

19) 청나라 모종강본과 명나라 嘉靖壬午本の 관련 묘사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 嘉靖壬午本 『三國演義』 권18 『諸葛亮六擒孟獲』: (妻祝融)夫人世居南蠻, 能使飛刀, 百發百中, …… 祝融夫人披髮跣足, 身著絳衣, 背插五口飛刀, 手執丈八長標, 坐下卷毛赤兔馬。 …… 張嶷趕去, 空中一把飛刀落下。嶷急用手隔, 正中左臂, 翻身落馬。

이 바싹 닥쳐왔다. 이때 진웅이 비차(飛叉)를 날렸다. 그러나 조운이 날랜 손놀림으로 이를 잡아채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비차를 진웅에게 되 날렸다.²⁰⁾

진웅은 가공인물로 그가 비차(飛叉)를 썼다는 것은 허구이다. 『삼국지』에 飛叉라는 병기는 나오지 않는다. 모두 꾸며낸 이야기이다.

(2) 飛叉의 정의와 생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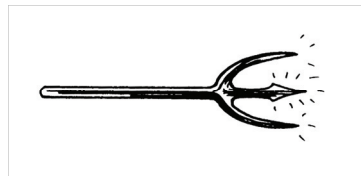
『병기사전』은 “던지는 데에 쓰는 叉이다. 수렵 도구이며, 병기로도 쓴다.”²¹⁾라고 하였다. 사냥꾼 출신인 진웅의 암기로 잘 어울린다.

山東省 臨沂縣 白莊 漢代 畫像石(〈그림1〉) 가운데에는 蚩尤像이 있는데, 등에 꽂고 있는 것이 쇠뇌(弩)이고, 오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도끼(斧)이며,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이 장검(長劍)이며,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두 갈래 차(叉)이다.²²⁾ 비차(飛叉)는 이 차(叉)를 작게 축소시키고, 자루를 짧게 줄인 병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림2〉는 『武器事典』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차(飛叉)의 그림이다.²³⁾



〈그림1〉 치우가 왼손에 들고 있는 병기가 叉이다.

비차(飛叉)의 생김새에 대하여, 周緯는 『中國兵器史稿』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림2〉 비차(飛叉)

비차(飛叉)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20) 52회: 原來二人都是桂陽嶺山鄉獵戶出身, 陳應會使飛叉, …… 陳應回顧趙雲馬來相近, 用飛叉擲去, 被趙雲接住, 回擲陳應。

21) 『병기사전』: 飛叉: 用於投擲的叉。狩獵工具, 亦作為兵器。

22) 『臨沂漢畫像石』(山東美術出版社, 2002)은 치우를 방상씨(方相氏)로 보고 차(叉)를 가래(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잘못된 풀이이다. 위 화상석 그림의 주인공은 전쟁의 신 치우(蚩尤)이므로 농기구인 가래가 아닌 병기인 차(叉)를 들고 있는 것이 옳다.

23) 市川定春, 『武器事典』, 東京, 新紀元社, 1996, 256쪽.

송(宋)나라 때부터이다. 본디 군중에서 사용하는 나무자루가 달린 긴 차(長叉)와 대체로 (생김새가) 같은데, 단지 몇 배가 작을 뿐이다. 만주(滿洲)의 병사들은 차(叉)를 사용하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청대에 비차(飛叉)가 특별히 성행하였다. 100보(步) 바깥에서도 사람을 찌를 수 있었다. 차(叉)의 전체 몸체는 쇠를 녹여 만드는데, 길이는 약 9촌(=30cm)이며, 차의 머리가 약 1/3을 차지하며, 3촌(=10cm) 이상이 된다. 줄기의 수는 어떤 것은 세 줄기이거나 어떤 것은 다섯 줄기인데, 세 줄기로 된 것이 비교적 많다. 가운데에 있는 줄기는 창(槍) 끝처럼 튀어나왔고, 양 옆의 두 갈래는 반원형(半圓形)으로, 가운데 줄기의 양 옆에서 가운데 줄기를 둘러싸고 있다. …… 9개의 차(叉)를 한 묶음으로 하며, 부드러운 가죽으로 된 끈이 주머니에 넣어서 어깨와 등 뒤에 비스듬히 묶는데, 차(叉)의 머리는 위쪽을 향하게 한다.²⁴⁾

『삼국연의』에 나오는 비차(飛叉)는 漢末 三國時期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병기로, 宋代의 병기를 끌어다가 묘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단극(短戟)과 소극(小戟)과 수극(手戟)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단극(短戟)은 『삼국연의』 11회에서 전위(典韋)가 사용하는 투척 병기로, 15회에서 태사자(太史慈)가 차고 있던 투척 병기로 각각 1번씩 모두 2번 나온다.

먼저 전위(典韋)가 단극(短戟)을 던져 여포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묘사를 살펴보자.

전위(典韋)는 손에 철극 한 쌍(雙鐵戟)을 치켜들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주공(조조)께선 걱정 마소서!” 그는 몸을 날려 말에서 내려 철극 한 쌍(雙鐵戟)을 등 뒤에 꽂더니, 단극(短戟) 열 몇 자루를 꺼내어 손 안에 쥐어들었다.① 그리고 따르는 병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놈들이 10보(약 15m)²⁵⁾까지 오거든 내게 소리쳐라!” 그리고는 발걸음을 성큼성큼 내딛으며 화살을 무릅쓰며 조조를 찾아 앞으로 나아갔다. 여포의 말 탄 기병 수

24) 周緯, 『中國兵器史稿·清代兵器·清代暗器』,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5, 187쪽.

25) 당(唐) 이전에는 1步=6尺. 한말삼국시기에 1尺=24.2cm, 10보=10×6×24.2cm=14.52m.

십 기가 쫓아왔다. 따르는 병사가 크게 소리쳤다. “10보입니다!” 전위가 말했다. “5보(약 7m)²⁶⁾가 되면 내게 소리쳐라!” 따르는 병사가 또 소리쳤다. “5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전위는 몸을 돌려 극을 날렸다. 극이 하나 던져질 때마다 적의 장수 하나가 말에서 떨어졌다. 하나도 빗나가는 극이 없었다.²⁾ 곧바로 수십 명의 적들이 죽어 자빠졌다. 쫓아오던 적의 무리는 이 모습을 보더니 냅다 쭉지를 빼고 달아났다. 전위는 다시 몸을 날려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커다란 철극 한 쌍(雙鐵戟)을 곧추세우고 적진을 꿰뚫고 들어갔다.³⁾²⁷⁾

모종강은 전위가 쌍철극(雙鐵戟)과 단극(短戟)을 쓰는 이 부분의 묘사를 매우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①·②·③은 모종강 단평의 위치이다. ①에서, “여포(呂布)는 한 자루의 극을 쓰는데, 전위(典韋)는 한 쌍의 극을 쓰니, 묘사가 멋지다. 그런데 두 자루의 대극(大戟)은 쓰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극(小戟)을 쓰니, 묘사가 더욱 멋지다.” ②에서, “100보의 거리에서는 화살로 적을 맞히지 못하는데, 5보의 거리에서는 극을 쓰니, 그 묘사가 끝내주게 멋지다.” ③에서, “갑자기 말에 올라탔다가, 갑자기 말에서 뛰어 내렸다가, 갑자기 소극(小戟)을 썼다가 갑자기 대극(大戟)을 썼다가 한다. 전위를 마치 살아있는 용이나 범처럼 묘사하고 있다.” 모종강의 평에서는 단극(短戟)과 소극(小戟)을 같은 병기로 보고 있다.

『삼국연의』의 위의 묘사는 『三國志』의 다음 기록을 바탕으로 꾸며진 것이다.

『三國志·魏書·典韋傳』: 태조(太祖: 조조)는 (여포의 공격을) 뚫고 나갈 돌격대를 모집하였는데, 전위가 먼저 나섰다. 전위는 모집에 호응한 사람 몇 십 명을 거느렸는데, 모두 두 겹으로 갑옷을 겹쳐 입고서 방패도 버린 채, 긴 모(長矛)와 극(戟)을 들었다. 이 때 서쪽에서 (여포의 군대가

26) 5보=5×6×24.2cm=7.26m.

27) 11회: (典韋)手挺雙鐵戟, 大叫: “主公勿憂!” 飛身下馬, 挿住雙戟, 取短戟十數枝挾在手中, ① (呂布一戟, 典韋雙戟, 奇矣: 乃不用兩大戟, 而用無數小戟, 更奇。) 顧從人曰: “賊來十步乃呼我!” 遂放開脚步, 冒箭前行, 布軍數十騎追至, 從人大叫曰: “十步矣!” 韋曰: “五步乃呼我!” 從人又曰: “五步矣!” 韋乃飛戟刺之, 一戟一人墜馬, 並無虛發。②(百步箭不敵五步戟, 奇絕。) 立殺數十人, 衆皆奔走。韋復飛身上馬, 挺一雙大鐵戟, 衝殺入去。③(忽上馬, 忽下馬; 忽用小戟, 忽用大戟。寫典韋如生龍活虎。)

쳐들어오고 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오자, 전위가 나아가서 그들을 막아 내기로 하였다. 적들은 활과 쇠뇌를 마구잡이로 쏘아댔으므로, 화살이 마치 빗발처럼 쏟아졌다. 전위는 (쏟아지는 화살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으므로, 거느리고 있던 무리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놈들이 10보 거리까지 오면 내게 알려라.” 무리의 사람이 말하였다: “10보 거립니다.” 전위가 또 말하였다: “5보 거리가 되면 알려라.” 무리의 사람이 두려워서 재빨리 말하였다. “놈들이 왔습니다!” 전위는 손에 열댓 자루의 극(戟)을 쥐고 있다가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일어났다. 그의 극이 닿는 자 가운데 전위가 손을 휘두를 때마다 고꾸라지지 않는 자가 없었다. 여포의 무리는 물려갔다. 때마침 날도 저물어, 태조는 병사를 이끌고 떠날 수가 있었다.²⁸⁾

『三國志·魏書·典韋傳』에는 극(戟)으로만 기록 되어 있어서, 전위가 사용하였던 극(戟)이 열댓 긴 자루의 장극(長戟)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전위는 한 때 장수(張繡) 군과의 전투에서 장극(長戟)을 다루기도 하였다.²⁹⁾ 그러나 7m거리 떨어진 여러 적들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4m 길이가 넘는 장모(長矛)를 이미 들고 있는 위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2m 길이가 넘는 장극(長戟) 열댓 자루를 들고서 휘두르는 전투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³⁰⁾ 아마도 전위가 사용하였던 극(戟)은 투척용 수극(手戟)이 아닌가 싶다. 『삼국연의』는 단극(短戟)을 던지는 것으로 묘사하였는데, 아마도 수극(手戟)을 단극(短戟)의 일종으로 본 것 같다. 『삼국연의』에는 수극(手戟)이라는 이름의 병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설 『삼국연의』의 이야기 재료가 되는 역사 『삼국지』에는 수극(手戟)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삼국연의』에서는 『삼국지』의 수극(手戟)을 상황에 따라서 화극(畫戟), 단극(短

28) 『三國志·魏書·典韋傳』: 太祖募陷陳, 韋先占, 將應募者數十人, 皆重衣兩鎧, 棄楯, 但持長矛撩戟。時西面又急, 韋進當之, 賊弓弩亂發, 矢至如雨, 韋不視, 謂等人曰: “虜來十步, 乃白之。” 等人曰: “十步矣。” 又曰: “五步乃白。” 等人懼, 疾言 “虜至矣!” 韋手持十餘戟, 大呼起, 所抵無不應手倒者。布衆退。會日暮, 太祖乃得引去。

29) 『三國志·魏書·典韋傳』: (조조에게 반란을 일으킨 張繡의) 적군이 앞뒤로 닥쳐오며 점점 더 많아지자, 전위는 장극(長戟)을 들고 좌우를 공격하였는데, 치고 들어가자, (적이 들고 있던) 십여 자루의 모(矛)가 부러졌다. (賊前後至稍多, 韋以長戟左右擊之, 一又入, 輒十餘矛摧。)

30) 『병기사전』 장극(長戟) 조(條)에 따르면, 장모(長矛) 조(條)에 따르면, 전국시기 무덤과 진시황 병마용에서 출토된 장모(長矛)의 길이는 각각 4.36m와 6.7m이다. 춘추시기 말기와 전국시기 무덤에서 출토된 장극(長戟)의 길이는 각각 2.27m와 3.40m이다.

戟) 또는 소극(小戟)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꾸미고 있다.

『삼국연의』에서 초선에게 빠진 여포가 동탁을 죽이려고 마음먹게 된 것은 바로 동탁이 자신에게 화극(畫戟)을 던졌기 때문이었다.

8회: 동탁이 뒤뜰로 들어가 두 사람을 찾아보니, 여포와 초선이 봉의정 아래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극(畫戟)은 곁에 기대어 있었다.① 동탁은 불끈 화가 솟구쳐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포는 동탁이 온 것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돌려 냅다 달아나기 시작했다. 동탁은 여포의 화극(畫戟)을 꼬나들고② 여포를 겨누는 채 뒤쫓아 갔다. 여포는 날쌔게 내뺐지만, 동탁은 뒤륙뒤륙 살이 찌서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동탁은 화극을 들어③ 여포를 겨누어 던졌다. 날아오는 화극을 여포가 손으로 쳐내니 화극이 땅에 떨어졌다.④ 동탁이 쫓아가서 다시 화극을 주어들고 쫓아갔으나⑤ 여포는 벌써 멀리 내뺐었다.³¹⁾

모종강은 이 부분의 묘사에서, 이를테면 ‘10번째로 극을 묘사하고 있다 (十寫戟)’라는 형식으로, 극(戟)을 묘사하고 있는 열 군데를 하나하나 들면서 단평을 달고 있다. 위에서 표시된 ①·②·③·④·⑤의 부분이 6·7·8·9·10번째로 극을 묘사하고 있다며 단평(短評)을 단 부분이다. 의붓아버지와 아들 사이였던 동탁과 여포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바로 여포의 전용 병기인 화극(畫戟)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모종강의 단평에서는 “먼저 (동탁이 여포에게) 극을 던지는 것으로 두 사람이 틀어지는 도 화선으로 삼았다. (先爲擲戟作引。)”라고 하였다. 이후에 왕윤은 이 일을 들어 여포에게 동탁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한다.

왕윤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장군의 본디 성은 여씨요, 태사의 본디 성은 동씨외다. 그가 장군께 극(戟)을 겨누어 던졌을 때, 어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정이란 게 있었겠소이까?”³²⁾

31) 8회: 卓尋入後園, 正見呂布和貂蟬在風儀亭下共話, 畫戟倚在一邊。(六寫戟。)卓怒, 大喝一聲。布見卓至, 大驚, 回身便走。卓搶了畫戟, (七寫戟。)挺着起來。呂布走得快, 卓肥胖趕不上, 擲戟刺布。(八寫戟。)布打戟落地。(九寫戟。)卓拾戟再趕。(十寫戟。)布已走遠。

32) 9회: 允微笑曰: “將軍自姓呂, 太師自姓董。擲戟之時, 豈有父子情耶?”

이에 대하여 모종강은 다음과 같은 단평을 달았다. “여포를 부추기는 말 속에서 또 다시 ‘극(戟)을 겨누어 던지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여포의 속을 더욱 긁고 있다. (攬撥之中, 又以“擲戟”二字激惱他。)” 이러한 단평들은 소설의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소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종강이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비평으로, 시대를 앞서는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묘사는 아래의 역사『삼국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꾸며낸 것이다. 사실 동탁이 여포에게 던진 것은 긴 자루가 달린 화극(畫戟)이 아니라 자루가 없는 수극(手戟)이었다.

『三國志·魏書·呂布傳』: 동탁은 성격이 강팍하고 속이 좁았으므로, 화가 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를 생각하지 않았다. 일찍이 (동탁이 여포에게) 조금 언짢은 일이 있자, 동탁은 수극(手戟)을 뽑아 여포에게 던진 적이 있었다. 여포는 몸을 움츠려 재빠르게 수극(手戟)을 피하였다. 여포가 동탁에게 용서를 빌자, 동탁의 마음도 풀어졌다. 그러나 이 일로 여포는 남몰래 동탁을 원망하게 되었다.³³⁾

역사『삼국지』에서의 수극(手戟)은 소설『삼국연의』에서 여포의 전용 병기로 묘사되고 있는 화극(畫戟)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의 ‘여포가 몸을 움츠려(拳)(수극을) 피한’ 것이 『삼국연의』에서는 ‘여포가 (날아오는 화극을) 손으로 쳐내니(打)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권(拳)은 주먹으로의 뜻이 아니라, ‘구부리다, 움츠리다(蜷)’의 뜻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삼국연의』가 『삼국지』 보다, 여포의 동탁에 대한 반항심리(反抗心理)를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⁴⁾

33) 『三國志·魏書·呂布傳』: 卓性剛而褊, 忿不思難, 嘗小失意, 拔手戟擲布。布拳捷避之, 爲卓顧謝, 卓意亦解, 由是陰怨卓。

34) 『삼국지』 배송지 주의 기록에 따르면, 수극(手戟)을 아랫사람에게 던진 것은, 강팍한 성격의 동탁뿐만 아니라, 유비도 그런 적이 있었다. 『三國志·蜀書·趙雲傳』 裴松之注가 인용하고 있는 『趙雲別傳』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지난날, 선주(유비)가 패배하였을 때, 조운이 이미 북쪽으로 떠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선주는 수극(手戟)을 그에게 던지며 말하였다. “자룡은 나를 버리고 달아나지 않는다.” 머지않아, 조운이 이르렀다. (『三國志·蜀書·趙雲傳』 裴松之注: 雲別傳曰: 初, 先主之敗, 有人言雲已北去者, 先主以手戟擲之

이어서, 『삼국연의』에서 손책이 태사자가 등 뒤에 차고 있던 단극(短戟)을 빼앗으며 싸우는 묘사를 살펴보자.

15회: (손책과 태사자가 싸우는데) 손책은 손을 재빨리 뻗어 태사자가 등 위쪽에 차고 있던 단극(短戟)을 뽑아들었다. 그 틈에 태사자도 손책이 머리 위에 쓰고 있던 투구를 벗겨들었다. 손책이 단극(短戟)으로 태사자를 찌르자, 태사자는 투구로 맞아아치며 막았다. …… 손책은 기다란 창끝에 어찌 빼앗은 태사자의 소극(小戟)을 매달아 군진 앞에 내걸자 …… 태사자 또한 손책의 투구를 군진 앞에 내걸고서, …… 35)

단극과 소극을 구분 없이 같은 병기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삼국연의』의 묘사는 아래의 『삼국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꾸며낸 것이다.

曰: “子龍不棄我走也。” 頃之, 雲至。) 『삼국지』의 위 기록은 『삼국연의』에서 다음처럼 이야기가 꾸며졌다. 41회: 미방이 말하였다. “그가 서북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 유비가 말하였다. “…… 자룡이 그렇게 간 것은 틀림없이 무슨 까닭이 있었을 것이다. 자룡은 틀림없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41회: 糜芳曰: “我親見他投西北去了。” …… 玄德曰: “…… 子龍此去, 必有事故。吾料子龍必不棄我也。”) 『삼국지』에서 유비가 아랫사람에게 수극을 던졌다는 내용을, 『삼국연의』에서는 일부러 빼버렸다. 유비에게 동탁과 같은 강박한 성격이 있음을 감춘 것이다. 한편, 孫策이 嚴興을 죽인 병기도 수극(手戟)이었다. 『三國志·吳書·孫破虜討逆傳』 裴松之 注가 인용하고 있는 『吳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손책이 시퍼런 칼날을 뽑아들더니 엄여가 앉아 있던 자리를 찍었다. 엄여는 (칼날을 피하여) 몸을 움직였다. 손책이 웃으며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경은 앉아있다가도 필적 튀어오를 수 있으며, 재빠르기가 대단하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잠시나마 경을 놀려 본 것일 뿐이랴!” 엄여가 말하였다: “저는 칼날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책은 그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곧바로 수극을 그에게 던졌고, 엄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吳錄曰: …… 策引白刃斫席, 輿體動, 策笑曰: “聞卿能坐躍, 勳捷不常, 聊戲卿耳!” 輿曰: “我見刃乃然。” 策知其無能也, 乃以手戟投之, 立死。) 이와 달리, 『삼국연의』 15회는 엄여가 먼저 손책을 공격해서 손책이 엄여를 죽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손책이 엄여에게 던진 병기는 암기(暗器)인 수극(手戟)이 아니라 검(劍)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삼국연의』 15회: 엄여(嚴興)가 검을 썩하니 뽑아들면서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손책(孫策)이 검을 날려 엄여를 찍어 죽였다. 그는 재빠른 솜씨로 그의 몸뚱이를 뒤집더니 그 모가지(검으로) 그어 따냈다. (興拔劍起身, 策飛劍砍之, 應手而倒, 割下首級) 수극과 같은 암기는, 유비나 손책과 같은 최고의 영웅 인물이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서 빼버리거나 바꿔치기 한 것이다.

35) 15회: 策手快, 掣了太史慈背上的短戟; 慈亦掣了策頭上的兜鍪。策把戟來刺慈, 慈把兜鍪遮架。…… 孫策把鎗挑太史慈的小戟於陣前, …… 太史慈亦將孫策兜鍪挑於陣前, ……

『三國志·吳書·太史慈傳』: 태사자는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싸우다가 손책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손책은 태사자의 말을 절렀고 태사자의 뒷목에 차고 있었던 수극(手戟)을 뜯어 빼앗았다. 태사자 또한 손책의 투구를 빼앗았다.³⁶⁾

태사자가 뒷목에 차고 있던 것은 단극(短戟)이 아니라 수극(手戟)이었던 것이다. 수극(手戟)을 뒷목에 숨겨 차고 있던 것으로 보아, 수극은 상대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감추어 쓰는 은폐 암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단극(短戟)과 소극(小戟)과 수극(手戟)의 정의와 생김새의 차이

『병기사전』은 단극(短戟)을 “짧은 자루가 있는 극”³⁷⁾이라고 정의하였다. 『吳子·圖國』에, “장극은 길이가 2장4척(약5.5m)³⁸⁾이고,



〈그림3〉 단극(短戟)을 들고 있는 병사
중국 河南省 汲縣 山彪鎮 戰國墓 水陸攻戰紋銅鑿

단극은 길이가 1장2척(약 2.8m)³⁹⁾이다.”⁴⁰⁾라고 하였다. 중국 河南省 汲縣 山彪鎮 戰國墓에서 출토된 水陸攻戰紋銅鑿에서 병사들이 들고 있는 사람 키 길이의戟이 바로 단극이다. 따라서 단극은 자루가 달린 사람 키 길이 정도 되는 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극(手戟)은 어떤 병기인가? 『병기사전』은, “수극(手戟): 한 손에 쥐는 짧은 극(短戟)이다.”⁴¹⁾이라고 정의하였다. 『釋名·釋兵』에는, “수극(手戟)

36) 『三國志·吳書·太史慈傳』: 慈便前鬥, 正與策對。策刺慈馬, 而攬得慈項上手戟, 慈亦得策兜鍪。

37) 『병기사전』: 短戟: 短柄戟。

38) 『오자』를 전국시기 책으로 볼 때, 戰國時期 1丈=10尺이고, 1尺=23.1cm이다. 2장4척=24×23.1cm=554.40cm로, 약 5.5m가 넘는다.

39) 1장2척=12×23.1cm=277.20cm로, 약 2.8m가 된다.

40) 『吳子·圖國』: 爲長戟二丈四尺, 短戟一丈二尺。

41) 『병기사전』: 手戟: 單手握持的短戟。

은 손으로 쥐거나 던지는 戟(戟)이다.”⁴²⁾라고 하였다. 판본에 따라서 ‘擲(던지다)’자는 ‘摘(집다)’자로도 되어 있는데, ‘던지다’는 뜻이 담긴 ‘擲’자가 더 좋다고 보았다. <그림4>는 山東省 嘉祥縣 漢代 武氏石祠 畫像石 그림에 나오는 수극(手戟)의 생김새이다.⁴³⁾



<그림4> 수극(手戟)

소극(小戟)에 대하여, 『병기사전』은, “짧고 작은 戟이다. 대부분 의장용으로 쓰인다.”⁴⁴⁾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극은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의장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연의』가 묘사하고 있는 단극(短戟)이나 소극(小戟)은, 수극(手戟)을 포함하는 비교적 넓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4) 차돌(石子)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周緯의 『中國兵器史稿』에 따르면, 투척용 차돌 또한 暗器의 일종이다. 12회에 허저(許褚)가 자신이 차돌을 날려 강도폐의 공격을 막아내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다.

12회: 어느 날 강도폐가 쳐들어왔었지요. 나(허저)는 사람들에게 차돌(石子)을 가져다 놓으라고 시키고서, 내가 몸소 차돌(石)을 날려 놈들에게 던지니 맞지 않는 놈이 없더이다.⁴⁵⁾

모종강은 위의 묘사에 대하여, “전위(典韋)는 戟(戟)을 날리고, 허저는 차돌을 날리니, 둘 다 ‘깃 없는 화살(沒羽箭)’이라고 부를 만하다.”⁴⁶⁾고 단평(短評)을 달

42) 任繼昉, 『釋名匯校』, 濟南, 齊魯書社, 2006. 385쪽. 『釋名·釋兵』: 手戟, 手所持擲之戟也.

43) 陸錫興, 『中國古代器物大詞典 - 兵器·刑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2. 313쪽.

44) 『병기사전』: 小戟: 短小的戟. 多作爲儀仗.

45) 12회: 一日寇至, 吾令衆人多取石子準備, 吾親自飛石擊之, 無不中者.

았다. 위의 묘사는 허저가 날린 돌들이, 얼핏 암기의 일종인 비행석(飛蝗石)이나 아란석(鵝卵石)의 일종인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비행석은 길이가 10cm, 둘레는 넓적하고 무게는 약 300g-350g쯤 되는 가늘고 길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둥그렇게 생긴 돌덩이이다. 아란석은 무게가 600g쯤 되는 거위 알처럼 생긴 딱딱한 돌덩이이다.⁴⁷⁾

위의 내용은 『三國志』의 다음 기록을 바탕으로 꾸며진 것이다.

『三國志·魏書·許褚傳』: (허저는) 벽루(壁壘) 안에 있던 남녀들에게 명령을 내려 세숫대야나 한 말 크기의 돌들을 벽루의 네 귀퉁이에 모아 놓게 하였다. 허저가 돌을 날려 그들(강도떼)에게 던지면, 맞는 것은 모두 부러지고 부서졌다. 이 때문에 적은 감히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었다.⁴⁸⁾

위의 기록에 따르면 허저가 던진 돌은 암기의 일종인 비행석(飛蝗石)이나 아란석(鵝卵石)이 아니라, 세숫대야나 한 말 크기의 돌(石如杵斗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소 밋밋하고 특이할 것 없는 역사기록에서 '세숫대야나 한 말 크기의'라는 수식어를 삭제하는 것만으로, 『삼국연의』의 작가는 극을 날리는 전위(典韋)와 차돌을 날리는 허저(許褚)의 형상을 짝지어서 조조 휘하의 두 명의 무장으로 생동적으로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5) 방촌지인(方寸之刃)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방촌지인(方寸之刃)은, 82회에 1번 나온다.

82회: 형정(邢貞)은 윗나라 천자의 사신이랍시고, 성문에 들어오면서 수레에서 내리지도 않았다. 장소(張昭)가 크게 노여워하면서 사납게 소리

46) 12회 모종강 단평: 典韋飛戟, 許褚飛石, 俱可稱“沒羽箭”。

47) 周緯, 『中國兵器史稿』, 188쪽.

48) 『三國志·魏書·許褚傳』: (許褚)乃令壁中男女, 聚治石如杵斗者置四隅。褚飛石擲之, 所值皆摧碎。賊不敢進。

쳤다. “..... 그대가 감히 거들먹거리려고 싶은가 본데, 설마 우리 강남에 가로세로 1촌 길이의 정사각형 넓이의 칼날(方寸之刀) 하나도 없겠소이까!” 이 말을 듣자 형정은 허둥지둥 수레에서 내려 손권을 뺏고는 수레를 나란히 하고 성안으로 들어갔다.⁴⁹⁾

위 내용은 『三國志』의 다음 기록을 바탕으로 꾸며진 것이다.

『三國志·吳書·張昭傳』: 황초(黃初) 2년(221), (위나라는) 사자 형정(邢貞)을 (오나라로) 보내 손권에게 오왕(吳王)의 작위를 주었다. 형정은 (오나라의) 궁문으로 들어가서도 수레에서 내리지 않았다. 장소가 형정에게 말했다. “..... 그대는 감히 스스로를 존대하고 있구려. (우리) 강남이 (위나라보다) 인구가 적고 약하여 가로세로 1촌 길이의 정사각형 넓이의 칼날(方寸之刀)조차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소?” 형정은 곧바로 수레에서 내렸다.⁵⁰⁾

『삼국연의』의 장소의 말투가 『삼국지』보다 격양되어 있는 것 말고, 방촌지인(方寸之刀)에 관한 내용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방촌지인(方寸之刀)의 정의와 생김새

漢末 三國 시기에 1寸은 2.42cm이다. 방촌지인(方寸之刀)이란,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42cm인 정사각형 넓이의 칼날이라는 뜻이다.⁵¹⁾ 이만한 크기의, 손으로 던지는 암기로는, 금전표(金錢鏢: 길이 3cm, 무게 4-37.3g)와 철감람(鐵橄欖: 길이 2.3cm, 무게 37-75g)을 들 수 있다. 금전표는 동전 또는 그만한 크기의 쇠붙이 테두리를 날카롭게 간 암기이고, 철감람은 올리브 열매의 씨처럼 아래는 둥글고 위쪽 끝은 뾰족하게 생긴 작은 쇳덩어리 암기이다.⁵²⁾ 금전표가 원형이고, 철감람이 뾰족한 끝이 있는 구형에 가깝다면, 방촌지인(方寸之刀)은 아마도 정사각형

49) 82회: 邢貞自恃上國天使, 入門不下車。張昭大怒, 厲聲曰: “..... 君敢自尊大, 豈以江南無方寸之刀耶?” 邢貞慌忙下車, 與孫權相見, 並車入城。

50) 『三國志·吳書·張昭傳』: 魏黃初二年, 遣使者邢貞拜權爲吳王。貞入門, 不下車。昭謂貞曰: “..... 君敢自尊大, 豈以江南寡弱, 無方寸之刀故乎!” 貞即遽下車。

51) 『漢語大詞典』: “方寸: 가로세로가 각각 1촌 길이인 정사각형의 넓이(一寸의 平方大小)”

52) 시노다 고이치 지음, 『무기와 방어구』, 서울, 들녘, 2001. 362-365쪽.

이나 마름모꼴에 가까운 형태의 암기일 것이다. 이 암기는 비록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타격력은 작았겠지만, 상대의 눈에 잘 띄지 않았을 것이고, 독약 등을 묻혀 응용하여 사용한다면, 상대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6) 촌철(寸鐵)

(1)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그리고 『삼국지』와의 대조

촌철은, 제109회에 1번 나온다.

109회: 강유는 허둥지둥 산속으로 달아났고, 등 뒤로는 광희가 병사를 이끌고 강유를 바짝 뒤쫓아 갔다. 광희는 강유의 손안에 촌철(寸鐵)조차 없는 것을 보고는, 말을 내달리며 창을 치켜들고 그를 바짝 뒤쫓아 갔다.⁵³⁾

촌철은 역사 『삼국지』에는 나오지 않는다.

(2) 촌철(寸鐵)의 정의와 생김새

촌철(寸鐵)은 방촌지인(方寸之刃)의 또 다른 이름이거나 그에 가까운, '1촌(2.42cm)길이의 아주 작은 쇠붙이 암기'를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결론

본고는 『삼국연의』에 나오는 '손으로 던지는 暗器' 모두를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3) 109회: 維望山中而走, 背後郭淮引兵趕來。見維手無寸鐵, 乃驟馬挺鎗追之。

『삼국연의』에 나오는 손으로 던지는 暗器					
번호	암기명칭과 회수	『三國志』	출처	사용자	비고
1	飛刀: 90회, 3번	없다	明『練兵實紀雜集』	祝融夫人: 가공인물	허구
2	飛叉: 52회, 2번	없다	宋代의 무기	陳應: 가공인물	허구
3	短戟 小戟: 11회, 15회, 총2번	手戟	短戟: 戰國 銅鑿 手戟: 漢代 畫像石	短戟: 典韋, 太史慈 手戟: 董卓, 劉備, 孫策, 太史慈	변형
4	石子: 12회, 1번	세숫대야 나 한 말 크기의 돌		許褚	변형
5	方寸之刃: 82회, 1번	있다			원형
6	寸鐵: 109회, 1번	없다			허구

고찰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삼국연의』에 나오는 ‘손으로 던지는 암기들 가운데, 방촌지인(方寸之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기들은 역사서인 『삼국지』의 기록에는 없는 허구의 또는 변형된 암기들이었다. 둘째, 이들 암기들의 일부는 후한 또는 삼국시대가 아닌 송대 이후 명청대에 주로 사용하던 암기들이었다. 셋째, 이들 암기들은 이민족 여성, 사냥꾼, 조조의 장수 등 주로 부정적 형상의 다양한 인물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삼국연의』의 작가는 유티와 손책과 같은 대표적 영웅인물들이 이들 암기를 사용하였던 것을 은폐하고자, 역사 『삼국지』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 또는 조작하여 소설로 꾸며내었다. 이는 작가가 전쟁 소설의 인물 형상을 빚어내는 데에 있어서 그가 사용하는 병기의 형상과 속성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구성해내었음을 뜻한다. 다섯째, 개성적 인물 형상을 빚어내기 위하여, 작가는 특정 암기를 특정인물과 짝지어 묘사하였다. 여섯째, 작가는 암기를 순간적 사태 전환 및 역전의 짜릿한 스토리를 구성하는 적절한 소품으로 빚어내어 적시적소에 활용하고 있었다.

〈參考文獻〉

- 范曄 撰, [唐] 李賢 等注,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5.
- 陳壽, 『三國志』, 北京, 中華書局, 1959.
- 盧弼 撰, 『三國志集解』, 臺北, 宏業書局, 民國61.
- 羅貫中 原著, 『三國演義』,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 羅貫中 著, 毛宗崗 評改, 『三國演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 王圻, 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 宋應星, 『天工開物』,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4.
- 任繼昉, 『釋名匯校』, 濟南, 齊魯書社, 2006.
- 編輯委員會, 『中國畫像石全集』, 濟南, 山東美術出版社, 2000.
- _____, 『中國畫像磚全集·河南畫像磚』, 成都, 四川美術出版社, 2005.
- _____, 『臨沂漢畫像石』, 山東美術出版社, 2002.
- 曾公亮 撰, 『武經總要』, 『中國兵書集成』,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 茅元儀 撰, 『武備志』, 『中國兵書集成』,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
- 陸錫興, 『中國古代器物大詞典 - 兵器·刑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2.
- 孫機 著, 『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周緯 著, 『亞洲古兵器圖說』, 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2009.
- 王兆春, 『中國軍事科技通史』, 北京, 解放軍出版社, 2010.
- 홍윤기, 「『삼국연의』에 나오는 망치류 병기에 관하여」 『中國語文論叢』 72輯,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5.
- 홍윤기, 「『三國演義』에 나오는 弓弩 戰術에 관하여」 『中國語文論叢』 67輯,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5.
- 홍윤기, 「『三國演義』에 나오는 弩에 관하여」 『中國語文論叢』 66輯,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4.

〈Abstract〉

A Study of Hand Throwing Hidden Weapons
in *The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三國演義』)

Hong, Youn-Ki

There are many hand throwing hidden weapons in *The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三國演義』).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features of the novel description about these hand throwing hidden weapons: Flying cutter(飛刀), Flying fork(飛叉), Short halberd(短戟), Small halberd(小戟), Stone(石子), One inch blade(方寸之刀), One inch iron(寸鐵).

Through this investigation, we can know the following features: The first, most of the hand throwing hidden weapons are non-existent weapons in three kingdoms period. Actually these weapons have been appeared in the Song and Ming, Qing Dynasty, later than three kingdoms period. The second, some characters who are using these hand throwing hidden weapons are fictional characters. They are non-existent persons in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三國志』).] The third, the writer avoided matching these hand throwing hidden weapons with the great hero characters, calculatedly. The forth, as the novel props, these hand throwing hidden weapons make the excellent action which cause momentary inversion of the battle condition.

Key Words: *The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三國演義),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三國志), hidden weapons(暗器), Flying cutter(飛刀), Flying fork(飛叉), Short halberd(短戟), Small halberd(小戟), Hand halberd(手戟)

關鍵詞: 삼국연의(三國演義), 삼국지(三國志), 암기(暗器), 비도(飛刀), 비차(飛叉), 단극(短戟), 소극(小戟), 수극(手戟)

이 논문은 2016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6년 7월 3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7월 3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